

미술관의 치유적 기능에 대한 가능성 탐색

An Inquiry of the Possibility of the Healing Function of Art Museums

김은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Eun-Jin Kim(eunjin49.kim@gmail.com)

요약

본 연구는 현대의 미술관이 갖는 여러 기능 중 치유적 기능의 가능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탐색함으로 ‘미술관의 치유적 기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미술관에서는 이미 알츠하이머 환자, 학습부진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치유적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미술관이 갖는 치유적 잠재력은 미술감상과 공간, 소통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실제적으로 미술관에서의 경험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치유적 기능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는 “미술관의 치유적 기능”은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관 관계자들에게 미술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줄 것이며, 현대에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직장인, 학생 및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미술관을 문화 교양 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보살피고 치유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도와 미술관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 | 미술관 | 미술관의 기능 | 치유 | 미술관 미술치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the healing function of art museums in modern times with the precedent studies and to explore the healing potential specifically. There have been studies on the various healing programs regarding patients with Alzheimer, learning disability, seniors, etc. The researcher approached this study in three aspects, art appreciation, space, communication as healing potential of art museums. These findings will be able to draw more social attention on art museums. Therefore, this study will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the art museums to people concerned art museums. And it will make the professionals, working for company workers, students and other people suffering under the modern stress, recognize the art museums as a place to look inside in the professionals' own mind and to heal as well as a place for culture and sophistication. These findings will be able to draw more social attention on art museums.

■ keyword : | Museum | Function of Museum | Healing | Art Therapy at Museum |

I. 서론

최근 국내의 미술관은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미술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이후 미술관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부터였다. 통계청에서 2014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 본 연구는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접수일자 : 2015년 08월 20일

수정일자 : 2015년 09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9월 24일

교신저자 : 김은진, e-mail : eunjin49.kim@gmail.com

에 미술관 수가 2002년에 60개였는데 비해 10년이 지난 2012년에는 171개로 300%에 이르는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오는 문화와 웰빙에 대한 관심 고양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미술관은 풍부하고 감각적이며 실제적인 미술품을 학문적인 배경과 함께 제공하여 다차원적인 경험을 마련하고 있다. 미술관에 가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경험과 아이디어를 얻고 만족을 느낄 수 있다. 훌륭한 미술관 전시를 통하여 매일 반복되는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아름다움과 사고, 기억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Maslow는 이를 절정경험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이 완전히 몰입함과 동시에 의식이 살아있는 경험으로 삶의 질적인 만족을 주며 인간존재의 본질적 가치를 확고히 해 준다. 미술관은 영혼을 고양시켜 사고와 감각의 폭을 넓히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혹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곳이다 [1].

학계에서 미술관을 정신건강과 관련된 잠재력을 가진 장소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이전부터 정신건강 학계에서는 미술관의 잠재적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미술관은 소통의 공간으로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도구였다. 미술관은 미술작품과 공간, 다양한 차원의 경험이 마련된 곳으로 사람들에게 체험을 주는 장소이다[2].

1. 미술관의 의미와 기능의 변천

영어권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모두 'Museum'이라는 동일한 용어로 통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하는 미술관이라 함은 미술품을 소장하는 전문박물관으로 박물관이라는 상위개념에 속한 하위개념이다.

미술관의 기원은 선사 시대 이전으로 올라가 죽은 자의 무덤에 함께 묻었던 부장품과 싸움의 승리를 자축하는 전리품들을 모아두었던 장소로부터 생각할 수 있다. 또한 Museum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고대 그리스의 museion에서 온 것을 알 수 있는데, museion이란 문예, 미술, 철학의 여신 Muse에게 경배

하는 신전을 가리킨다[3].

기원전 3세기경 헬레니즘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국가 알렉산드리아의 왕 프톨레마이어(Ptolemy Philadelphus)가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이어 궁정에 각종 철학자의 조상이나 진귀한 동물과 예술품 등을 모아 두고 그 곳을 museion이라 부르게 했다. 이 곳에서는 여신에 대한 경배 뿐 아니라 문예와 철학을 연구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여신을 경배하는 한 방법이라 생각되었다. 이러한 미술관의 기능을 고려할 때 미술관의 가장 고전적 의미는 '보물창고'와 '뮤즈의 신전' 또는 '명상의 장소', '진리를 탐구하는 곳' 등의 의미가 있다[4].

중세에는 주로 귀족이나 부호의 개인 소장품으로 미술품을 수집하였는데, 특히 이탈리아의 메디치(Medici) 家에서 지은 우피치 갤러리(Galleria degli Uffizi)는 미술품이 아직까지 건축물의 일부분에 장식용으로 설치되었던 이전과 비교해 미술품만을 위하여 지어진 최초의 건축물로 기록되어 있다. 우피치 갤러리를 짓게 한 코지모 1세(Duca Cosim I: 1516-1574)는 당시 피렌체 사회에서 공화정과 군주제의 번복 속에서 강력한 통치에 의해 군주제를 자리 잡게 했던 인물로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보여주던 메디치가의 선조들과는 달리 학문과 예술을 정치수단으로 삼는 통치자였다.

혁명에 성공한 프랑스 정부는 미술의 공공성을 강조 하면서 1793년 최초의 근대적 미술관을 설립하였고, 이어 영국 의회는 1845년 박물관을 공비로 유지한다는 박물관령(Museum Act of 1845)을 통과시켰다. 이후 박물관의 설립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곧이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식민지 확장에 열중하게 되면서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박물관들이 식민지에서 수집하여 온 획득물로 가득 차 있으며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영국의 대영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등이 있다. 이 시기의 박물관들은 많은 양의 세계 각지에서 들어온 진귀한 전리품들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제국의 영광을 과시하는 정치적 장소로 이용되었다.

미국은 세계대전 이후 많은 박물관들을 곳곳에 설립하여 전 세계 30%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미술관 운영은 유럽에서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발전되어졌으며 과거에 후원자 중심으

로 이루어지던 미술관 운영이 관장이나 큐레이터의 운영전략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술관의 보다 적극적인 현대사회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1946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창설은 미술관을 포함한 박물관의 개념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의, 박물관 발전, 문화재의 보호와 보존 및 박물관을 통한 교육, 학술, 문화의 국제협력을 촉진하였고, 나아가 미술관의 사회적 기능으로써, 수집, 보존 뿐 아니라 교육, 전달, 향유를 규정함으로써 미술관의 현대적 개념을 정립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미술관의 기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해 왔다. 선사시대에는 무덤의 부장품과 전쟁의 전리품을 모아둔 보물창고로, 고대 그리스의 museion에 기원을 두는 알렉산드리아의 museion은 뮤즈의 신전, 학문을 탐구하는 곳, 명상의 장소로, 서구의 중세에는 부의 과시를 위한 공간, 세계 열강이 제국주의를 펼치던 근현대 시대에는 정치적 소통의 장소로,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수집, 보존 뿐 아니라 대중 교육의 장소로 변천해왔다.

현대의 교육적 기관으로서 미술관은 한 때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 발전하는 대중매체는 교육과 오락, 비용, 접근성 면에서 미술관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과시하였다. 미술관은 고리타분한 곳, 과거의 무덤, 신전으로 묘사되기도 했으며,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전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비유되기까지 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미술관은 새로운 관점에서 부각되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대중매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식상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으며, 사람들로 부터 실재하는 사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갔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제 미술관은 현대사회 속에서 실재하는 사물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고, '체험의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주목되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미술관의 관람객은 급속히 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단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뿐 만이 아닌, 대중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가기 위한 미술관 내부의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이기도 했다[5].

미술관을 새롭게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은 '치유적 장소로서의 미술관'이다[2]. 미술관을 명상과 내적 치유의 공간으로 인식한 것은 사실 오래된 전통이 있다. 이미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리아에 문학과 예술을 경배하는 mosieon이 존재했으며, 부정적인 의미에서였지만, 현대에도 미술관은 교회나 신전에 비유되곤 했다. 영국 런던 대학의 Chatterjee 와 Noble은 2013년에 발간한 'Museums, Health and Well-Being'에서 미술관은 이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의 성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미술관은 예술품과 일상에서 분리된 공간, 다양한 차원의 체험이 마련된 곳으로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무한한 자원의 원천이 될 것이다[6].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미술관의 치유적 기능"을 탐색하여 그 가능성을 밝힘으로, 미술관학계에 '미술관의 치유적 기능'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직장인, 학생 및 전문가들에게 미술관이 문화교양 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보살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할 것이다.

II. 본 론

1. 미술관에서 수행된 치유적 연구

미술관이라는 장소를 치유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은 주로 기관들의 협력에서 시작되었다. 캐나다에서 Deane와 Carman, Fitch는 1999년에 맥 마이클 캐나다 아트 컬렉션(the McMichael Canadian Art Collection)과 토론토 썬니부룩 지역 암센터(Toronto-Sunnybrook Regional Cancer Centre)가 함께 진행한 암환자들을 위한 미술치료/미술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암환자들은 자신의 암투병 경험을 심리적, 영성적으로 여러 단계에 거쳐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7]. 보스턴 현대미술관은 Hearthstone(벽난로 회사명)과 함께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해 미술관 '단기

포커스 투어'를 진행하도록 하였고[8], 노튼 수도회 뮤지엄 앤 가든(The Norton Priory Museum & Gardens)은 애스트무어 봉사회(Astmoor Day Services)와 학습 장애를 가진 성인을 위해 자연에서 직접 활동하도록 협력하였다[9].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사회 서비스 에이전시에서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은 학대받는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미술기반 가족 프로그램으로 Free Arts NYC와 함께 진행하였다[6].

미술관에서 수행하는 치유적 활동의 또 다른 형태는 미술관에서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위해 미술치료사에게 협력을 요청하여 진행되었다. 미국에 Silverman은 가족이 전시와 미술관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환경 안에서 기능을 익히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가족치료의 도구로서 미술관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제안하였다[10]. 미술치료사로 20여년간 내담자와 학생들을 만나 온 Linesch는 미술관에서 열린 감동적인 전시의 워크숍에 참여를 요청받아 진행한 그 특별한 경험을 보고하였다. 그녀는 미술치료사가 포함된 미술관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더 깊이 전시와 만날 수 있게 했으며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였다고 하였다[8].

세 번째 형태는, 미술치료사가 직접 미술관을 치료적 공간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Treadon은 “치료적 과정을 위해 미술관의 문 열기(Opening the doors of art museums for therapeutic processes)”라는 논문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미술관 미술치료를 통해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사례는 미술치료사들이 내담자들을 위해 어떻게 미술관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11]. Salom의 “새로운 장: 미술관 속 미술치료(Reinventing the setting: Art therapy in museums)”라는 논문에서는 두 개의 생의 단계(20대 집단과 60대 집단)에 있는 집단의 미술관에서 진행한 생의 탐색 사례연구를 통해 미술관이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2]. 최근 연구로 Mangione은 현대미술관에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미적 감각을 키우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연구를 보고하였다[13].

일련의 미술관에서 진행된 정신건강을 위한 사례연

구를 통해 미술관에서 내담자들은 미술작품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투사하고, 간접적으로 재경험 할 수 있는 기회와 작품에 자신에 대한 삶을 연결하여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미술관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술관은 사람들의 치유를 위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지만, 아직도 그에 대한 연구는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다[11].

2. 미술관의 세 가지 치유적 잠재력

미술관의 치유적 잠재력과 관련된 논의로 Silverman은 미술관의 치유적 역할로 네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미술관의 미술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People's responses to artefacts)이며, 둘째는 매체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The variety of interpretive), 셋째는, 미술관에서의 사회적 역할 가능성(The social role possible in museums), 넷째는 변화하지 않는 가치에 대한 욕구(The need for ongoing evaluation)라고 제안 하면서, 미술관이 사람들에게 주는 치유적 역할은 명백하다고 하였다[14].

미술치료사인 Andree Salom은 미국의 자아초월학술지에 “미술관 방문자의 치유적 잠재력”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Salom은 자신이 뉴욕의 루빈 미술관(the Rubin Museum of Art)에서 본 락슈미와 칼리라는 힌두여신의 조각을 통해 갖게 된 선형적 초월 경험을 소개하였다[6]. 그 역시 미술관의 갖는 치유적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그 역할을 Silverman 보다 미술치료적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미술관은 미술치료 과정 안에서 공동진행자의 역할(Museum as co-leader)을 하며, Yalom이 말한 집단치료의 장점인 보편성과 희망주입의 집단과 같은 역할(Museum as group)을 하며, 작품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의 만남을 이끄는 자아로써의 역할(Museum as self)과 치유적 환경의 역할(Museum as environment)을 한다고 하였다.

위의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미술관의 치유적 잠재력은 첫 째, 미술감상의 치유적 잠재력, 둘째, 공간

의 치유적 잠재력, 셋째, 소통의 치유적 잠재력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2.1 미술감상의 치유적 잠재력

미술 감상이 문화적 향유를 넘어서 개인의 내면적 고통을 덜어주는 치유적 기능이 있다는 견해는 현대 사회에서의 미술의 기능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 미술감상과 치유적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학자로 Leuteritz는 1997년 그의 저서에서 “예술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대면하는 것도 미술치료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론가이자 미술치료사인 정여주는 “예술은 예술가와 예술작품과 예술감상자 사이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창의적 작업을 이루어 내는 예술가 뿐 아니라, 예술을 수용하는 감상자도 예술가의 심리적, 정신적 영적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와 대화하는 소위 말하는 ‘홀륭한 창의적 생산’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환자에게 예술작품을 내적으로 재창조하며, 환자는 그림을 감상함으로써 심리적, 정신적 이완을 하게 되고, 나아가 마음의 고요와 평화 뿐 만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15].

미술 감상을 치료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독일의 병원 의사인 오토Ott 박사는 1997년 그의 저서에서 병실, 응급실, 중환자실, 복도, 휴게실 등에 의도적으로 그림들을 걸어두어, 환자와 병원 종사자들끼리 그림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극을 주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무엇보다 미술 작품을 통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약화시키거나 환자가 치유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선적 목적으로 두었다.

미술감상이란 미술작품을 즐기는 미적체험활동이다. 미술감상은 미적대상에서 미적가치를 느끼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내면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16].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世界美術辭典』에서는 예술작품의 전체에서 미를 향수하지만 단지 지적·분석적 이해와 개인의 ‘좋고, 싫음’의 정서적 반응과는 구별하여 작품을 적극적으로 음미하는 평가 활동이 가해지는 것이라 하였다. 본래 ‘감상’, ‘appreciation’은 라틴어의 ‘appreciatus’에서 온 용어로 ‘appraise’ 즉 품질, 크기, 무게 등을 ‘평

가하다’와 ‘감정하다’, ‘사정하다’, ‘값을 매기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예술작품의 의미와 질, 그리고 가치를 평가하는 의미를 포함 한다[16]. 그러나 미술 교육학자들은 미술 감상과 비평의 의미를 구분하여 미술작품에 접근하는 방식을 분명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미술교육학자인 류재만은 비평은 미적 대상의 분석을 통해 미적 가치 판단에 무게를 둔다면, 미술 감상은 미적 대상을 통하여 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하여, 미술감상의 개인적 측면을 강조 하였다[17]. 박휘락 역시 미술 비평에 앞서 미술 감상이 선행되어 일어나는 순환적 관계를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미술비평이 미술작품에 타당한 근거를 들어 타인 또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갖는다면, 미술감상은 작품을 매개로 작가의 삶과 대화하고 음미하면서 감상자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스스로 묻는 행위라고 하였다.

특히 박휘락은 감상이 단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미적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 인식으로, 예술작품에 깊숙하게 몰입하여 창작의 결과로 나타난 형상을 추상상追想像, 추체험追體驗하는 감각적 세계를 초월하는 추창조追創造의 정신작용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그가 말한 추창조追體驗로서의 활동은 일종의 몰아沒我的 경지로 작품이 거기 있고, 내가 여기 있다는 구분의식 없이 정신적으로 일체되는 상태라 하였다. 이와 같은 복잡하고 정교한 쾌감은 인간 특유의 정신 작용이며, 감상은 이러한 쾌감을 초월하여 자기형성을 위한 창조 작용이라는 데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창조주의 미술교육으로 유명한 로웬펠트는 미술 감상을 위해 어린이는 작품과 동일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어린이가 작품과 동일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작품에서 나타난 다양한 표현 방법에 ‘생명’을 부여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쉽고 재미있게 어린이들은 창의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18].

최근 학자들은 미술 감상에서 지적 이해를 넘어서 창조적 활동으로서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룬다. 이러한 견해는 작품의 가치가 작품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

고, 감상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늘 새롭게 재생산된다는 현상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즉 예술작품의 의미 구성에서 작품과 상호작용하는 감상자의 능동적 역할을 그 중심에 두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미술 감상에서 시지각을 통하여 시각적 산물인 미술작품으로부터 비언어적 정보를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된 잠재능력을 활용하도록 한다. 내면에서 생성되는 느낌과 이미지에 집중했을 때 작품과 일체되는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몰입’으로 체험되는 즐거움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더욱 깊이 있는 작품과의 교감을 이끌어 내어 만족감으로 경험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선구적 연구자들의 견해와 사례들은 미술감상의 치유적 가능성을 보여 준다. 미술과 같은 비언어적 예술활동은 인간의 보다 오래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즐거움을 경험시키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자신의 존재를 확신시킨다. 특히 미술감상은 미술 작품에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투사하고, 고통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할 수 있다.

2.2 공간의 치유적 잠재력

공간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움직임을 그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 움직임은 공간에 의해 창조되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반면에 공간은 움직임으로 채워져 풍부해진다[19].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은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며 직접적이고 연속적으로 모든 감각을 이용해 미술관을 체험한다. 미술관의 공간은 관람객의 움직임을 유도한다[20]. 인간의 공간감각은 자신에 대한 감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자신에 대한 감각은 자신의 환경과 직접적으로 교류한다[21]. 공간 인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마 용기로 알려진 뇌인데, 이것은 뇌에서 진화 초기에 나타난 변연계에 위치한다. 뇌의 변연계는 인간의 감정처리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공간에 대한 인식은 해마 용기를 통해 정서적 맥락과 함께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5]. 관람객은 미술관이라는 환경과 교류하

며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그 정서적 변화는 신체적 변화로 나타나며, 이것은 다시 자신에 대한 감각을 변화시킨다.

관람객은 전시장에 들어서서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먼저 다른 관람객과 함께 공유하는 일반적 공간(General Space)을 경험하게 되며,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나 그 앞에 멈추었을 때, 관람객과 미술작품 사이에는 공간적 긴장(spatial Tension)이 발생한다. 이어 관람객은 미술작품에서 받은 인상과 감정, 생각들을 나누며 역동적 공간(Dynamosphere)을 만들어 낸다. 이어서 관람객이 미술작품에서 받은 다양한 느낌과 생각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개인적 공간(Personal Space)으로 이동한다. 이처럼 미술관에서 관람객은 일반적 공간과 역동적 공간 그리고 개인적 공간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간과의 교감은 몸과 정신의 조화를 느낄 수 있게 한다[22].

관람객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 개념을 확장시킨다. 이때 작품과의 만남에서 얻은 충분한 성취감은 절정 경험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충족된 후 자기결정력에 의해 또 새로운 작품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관람객은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받은 정서적 변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감각을 변화시켜 내적 탄성을 회복하였다고 할 수 있다[21].

미술관은 미술품뿐 아니라, 전시동선, 조명, 채광 및 온습도까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리되고 기획되어진다[20]. 미술관 건축은 실내 공간은 잘 환기되고, 큰 작품을 걸 수 있는 높은 천정과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동선이 특징적이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걷도록 유도하는 건축 구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대체의학에서 인정받은 치료법이다.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연구센터에서는 미궁을 걷도록 하는 것이 직원, 환자, 환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임상연구센터에 커다란 캔버스에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인쇄한 미궁을 설치하였다.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종이 양말을 신고, 숨을 천천히 쉬며 미궁을 따라 여유를 갖고 천천히 걸었으며, 이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관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천천히 걸을 때, 일정한

호흡은 교감신경계의 반응에 대응하는 미주신경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23].

미술관의 건축적 특징을 보다 실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연구로 미국 미네소타대학에 있는 Meyers-Levy와 Zha는 천장 높이가 2.4m와 3m인 두 방에 같은 숫자의 사람을 모아놓고 단어 맞추기 게임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천장 높이가 낮은 방의 사람들은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성과가 좋았고, 천장 높이가 높은 방의 사람들은 추상력과 창의성에 필요한 과제 수행력이 높았다[24]. 높은 천정은 사람들의 척추의 움직임과 인식을 촉진한다. 또한,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동선은 몸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며 편안함을 준다.

미술관에 자주 오는 사람들은 미술관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앞에서 설명한 높은 천정과 천천히 걸을 수 있는 동선은 대부분 미술관의 특징이다. 또한, 관람객들은 미술관의 공간과 자신을 연결한 채 자신의 움직임을 의식하게 되고, 공간 안에서 스스로 몸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며, 몸과 마음은 보다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상태가 된다. 미술관의 공간은 관람객에게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체형 이외에 신체 감각과 환경이 교감하는 체험을 통해 조화와 균형감을 되찾게 해준다.

2.3 소통의 치유적 잠재력

미술관은 일상생활과는 분리된 공간이다. 미술관 안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사물들이 함께 존재한다.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낯선 공간에서의 색다른 경험을 공유한다. 인간 경험의 산물인 전시물들은 사람들에게 잊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며, 그 기억은 그들 간의 새로운 대화를 촉진시킨다. 전시물에 의해 촉발된 얘기치 못했던 내면의 이미지들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진전시킨다. 아래는 아버지와 6세 된 딸이 생명과학전시장에서 나누는 대화 기록이다[5].

어린 소녀가 전시물로 달려가면서 소리쳤다. “저것 봐요 저것 좀 보세요.” “이 병들 속에 있는 것들 좀 보

세요 저게 뭐죠 아빠?” 그녀의 아빠가 대답했다. “그것들은 각각의 동물들의 심장이라네.” 안내문을 읽으면서 그가 계속했다. “보라. 코끼리, 소, 개, 쥐의 생쥐의 심장이 있구나.” 어린 소녀는 그 심장들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아빠는 아빠 심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꼬마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네 생각엔 코끼리의 심장보다 클 것 같니 작을 것 같니?” “바보” 그녀가 대답했다. “더 작죠” “그래”, 아빠가 대답했다. “맞아, 그럼 소의 심장보다는 클 것 같니 작을 것 같니?” “바보” 그녀가 대답했다. “더 작죠” “그래.” 아빠가 대답했다. “맞아. 그럼 개의 심장보다는 클까 작을까?” “커요” 그녀가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스캠프 보다 크니까요”(스캠프는 이 가족의 강아지이다.)

“스캠프 팬츠는 거 맞죠?” 그녀가 물었다.(그날 아침에 동물병원을 간 스캠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스캠프는 그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하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난 스캠프가 아픈 걸 원하지 않아요 스캠프 바보” “그래, 그래” 아빠가 대답했다(캘리포니아 과학센터에서 열린 ‘생명의 세계’ 전시회에서 있었던 아버지와 6세 된 딸의 대화, Falk & Dierking, 2000, p.57).

이 대화록에서 전시물이 어떻게 가족의 대화를 촉진하고, 가족의 문제(병원에 간 강아지 스캠프)를 다루고 나아가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게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소외된 노인들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된 미술관 미술치료의 사례로서, Salom은 65세 이상 된 요양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미술관 미술치료를 진행하였다. 그 보고서에는 자신의 배제 조차 바꾸기 원치 않았던 노인들이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는지 묘사되어있다. 그 연구에서 Salom은 미술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면적 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준다고 보고하였다[13].

3. 미술관에서의 치유적 체험

미술관에서의 일반인들의 치유체험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의 미술치료사이며 미술관 방문의 치유력을 밝히고자한 미술치료사 Salom은 2008년 논문에서 자신의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얻은 치유적 체험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그녀는 미술관에서 모네의 수련을 보면서 생생한 감동을 받았으며, 그 순간은 자신이 의식이 모네가 그 그림을 그릴 때의 의식 수준과 연결된 상태였다고 회고하였다[12].

나는 l'Orangerie 미술관의 타원형 갤러리 중앙에 모네의 수련을 보려고 앉아 있었다. 어두운 조명과 곡선의 벽면, 그리고 갤러리의 분위기는 수련이 나로 하여금 아름다움으로 둘러싸여 차분해지도록 하였다. 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물 위에 떠서 부유하는 수련은 어떤 확장을 상징하는 거 같았다. 아마도 모네가 그 그림을 그릴 때의 의식의 수준이 나를 감동시킨 것일 것이다(Salom, 2008. p.5).

그녀는 또한 미술관에서 어떤 확장된 알아차림의 상태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전시장이라는 공간을 걸을 때, 미술작품 또는 어떤 장면으로부터 강렬한 생각으로 초대되어지는데 이러한 형식의 응시는 많은 명상 수업 중 하나인 '내려놓기'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내려놓기'는 우리가 잡고 있는 선 개념들, 이미지들과 자기의 중요성을 조금은 느슨하게 풀어놓고, 잠시 그것들이 희미해지도록 허용하는 상태이다. 그 때 우리는 여전히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라는 생각에 매달리지 않게 되며, 자신의 신뢰를 세워나가게 된다는 것이다(Salom, 2008). 여기서 미술관의 치유적 잠재력으로 공간과 미술작품 감상의 경험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연구로 소진을 보고하는 미술치료사의 미술관 체험을 탐색한 연구에서 지친 미술치료사가 미술관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보며 힘을 되찾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25]. 그 논문에서는 스스로 소진되었다고 보고하는 미술치료사 16명에게 미술관 체험을 제공한 후 개별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질적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아래의 글에서 연구 참여자는 미술치료사에게 미술관은 마치 긴 여정 중에 간이역처럼 잠시 멈

추어 머무르며 편안함과 휴식을 얻는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미술관에서의 체험은 미술치료사의 여정에서 간이역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 했어요 내가 소진되거나 신체적 피로감이 쌓이고 정신적으로 뭔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 가서, 작품과 교감하다 보면 잠념도 없어지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어쩌면 치료사에게 정말 잠시 머무르는 휴식을 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인터뷰 中. 일부 김은진, 2015, p.108)

또한 연구자는 인터뷰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미술관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위로와 통찰을 얻게 하였다는 회고를 근거로 미술관의 체험을 다른 미술치료사와 이야기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인터뷰가 끝난 후 연구자와 연구 참여 소감을 나누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미술관에서 연구자와 이야기를 나누며(인터뷰)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을 명료화할 수 있었고, 더 잘 통찰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회상하였다. (중략) 그들은 소진된 미술치료사로서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연구자와 미술관에서 얻은 자기 생각과 느낌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좋은 경험을 한 것으로 보였다(김은진, 2015. p.135).

16명의 참여자의 인터뷰를 분석결과 미술치료사들은 미술관에서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일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조용한 공간을 거닐며 몸과 마음의 안정과 균형을 되찾는 경험을 하였으며,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신과 삶에 대해 통찰하면서 위로 받고 삶의 활력을 얻었다. 또한 그들은 미술관에서 내담자의 작품에 더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민감성과 새로운 미술 표현매체와 표현방식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자연스럽게 미술치료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보고를 통해 미술관은 사람들에게 전시장을 거닐고, 작품을 보고, 함께 한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고, 새롭게 느끼도록 할 수 있는 치유적 기능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I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술관에서 진행된 치유적 프로그램을 탐색함으로써 미술관이 현대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치유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미술관의 치유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그것을 요약하면 첫째는, 미술관은 관람자가 미술품을 감상하면서 얻는 미술감상의 치유적 잠재력을 제공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즉 미술작품이 주는 미적 감동과 즐거움은 관람자를 내면의 카타르시스와 함께 정신적 고양으로 이끈다. 또한 미술작품과 내면적 대화 과정에서 미술관의 작품을 마치 Yalom이 말한 집단치료가 주는 장점인 보편성과 희망주입과 같은 심리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다. 관람자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신만의 감정을 예술가의 작품을 통해 확인하고(보편성) 그것을 작품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기회(희망 주입)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미술관은 관람객들에게 공간의 치유적 잠재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높은 천장, 편안한 동선, 채광, 습도, 온도는 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관람객들은 미술관에서 비교적 조용하고 쾌적한 전시관을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거닐면서 공간과 자신과의 관계를 느끼며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술관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통의 잠재력을 갖는다. 미술관은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가족, 친구, 동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든다. 미술품을 함께 감상하는 사람들은 작품을 통해 일상에서는 지나쳤던 소소한 사건에 대한 느낌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한다. 그들은 미술관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함께 걸으며 작품을 보면서, 과거의 경험을 환기 시키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순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더 깊이 있게 나눈다.

실제적으로 미술치료사들의 미술관에서의 체험을 다룬 연구를 통해 미술관에서의 치유적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미술관을 방문한 미술치료사들은 그곳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으며, 새로운 활력을 찾고, 더 나아

가 초월적 치유체험을 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는 “미술관의 치유적 기능”은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지지 못했으며 그 구체적인 가능성 역시 탐색되어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미술관학계에 “미술관의 치유적 기능”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후속 연구로 ‘미술관의 치유적 가능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로 미술관 치유 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와 함께 그 효과성에 대한 양적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서 제안한 미술관의 공간, 미술감상, 소통의 잠재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론적 탐색과 이를 적용한 미술관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으로 그 가능성을 입증하는 현장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미술관의 종사자들은 미술관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에게 미술관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줌으로 미술관이 사람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체험의 원천으로 기능하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직장인, 학생 및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에게 미술관은 문화 교양 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보살피는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울 것이다.

참고 문헌

- [1] N. Kotler, P. Kotler, *박물관 미술관학* (한종훈 외, Museum strategy and marketing, 원전 1998), 전영사, 2005.
- [2] H. Chatterjee and G. Noble, *Museums, Health and Well-Being*, UK: Ashgate Publishing, 2013.
- [3] 최태만, *미술관 설립 및 활동의 역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1990.
- [4] 이은기, “미술관 성립과 후원자의 역할”, *현대미술관연구*, 제6집, pp.195-196, 1995.
- [5] J. H. Falk and L. D. Dierking, *Learning from Museums*, U.S.A : AltaMira Press, 2000.
- [6] A. Salom, “The therapeutic potentials of a museum visit,” *International Journal of*

- Transpersonal Studies, Vol. 28, 2008, from http://www.transpersonalstudies.org/current_issue.html Accessed 10.06.09.
- [7] K. Deane, M. Carman, and M. Fitch, "The cancer journey: bridging art therapy and museum education," Canadian oncology nursing journal= Revue canadienne de nursing oncologique, Vol.10, No.4, pp.140-142. 1999.
- [8] Debra Linesch, "Art therapy at the museum of tolerance: Responses to the life and work of Friedl Dicker-Brandeis," The Arts in psychotherapy, Vol.31. No.2, pp.57-66, 2004.
- [9] G. Hayden, "Fertile ground," Community Care, Vol.1538, pp.38-39, 2004.
- [10] L. H. Silverman, "Johnny Showed Us the Butterflies: The Museum as a Family Therapy Tool," Marriage & family review, Vol.13, No.3-4, pp.131-150, 1989.
- [11] C. B. Treadon, M. Rosal, and V. D. T. Wylder, "Opening the doors of art museums for therapeutic processes", The Arts in psychotherapy, Vol.33, No.4, pp.288-301, 2006.
- [12] A. Salom, "Reinventing the setting: Art therapy in museums," The Arts in Psychotherapy, Vol.38, No.2, pp.81-85, 2011.
- [13] G. Mangione, "Access to what? Alzheimer's disease and esthetic sense-making in the contemporary art museum," Poetics, Vol.41, No.1, pp.27-47, 2013.
- [14] L. H. Silverman, "The therapeutic potential of museums as pathways to inclusion. Museums," society, inequality, pp.69-83. doi : http://books.google.co.kr/books?hl=ko&lr=&id=BCuDAgAAQBAJ&oi=fnd&pg=PA69&dq=Lois+Silverman&ots=8U8ijBJLqi&sig=PL9salpZGFsvpL0Gw2_o8ZjuCtE#v=onepage&q=Lois%20Silverman&f=false, 2002.
- [15] 정여주, *미술치료의 이해*, 학지사, 2007.
- [16] 박휘락,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시공아트, 2010.
- [17] 류재만, *초등 미술과 교수법*, 교육과학사, 2004.
- [18] V. Lowenfeld, W. Brittain,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Creative and Mental Growth*, 원진 1947), 서울 : 미진사, 2002.
- [19] R. Laban, *동작분석과 표현*(신상미 역, *The Mastery of Movement*, 원진 1971), 도서출판 금광, 2013.
- [20] 이규황, *미술관 전시공간의 관람 만족도와 관람 행태 상관성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3, 2009.
- [21] 김재리, 루돌프 라반(*Rudolf Laban*)의 '움직임 공간' 특성에 근거한 안무학적 분석 모형 개발 : *공간조화(Space Harmony)* 이론을 중심으로 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57-61, 2011.
- [22] 신성미, 김재리, *몸과 움직임 읽기*, 한영문화사, 2010.
- [23] A. Berger and C. B. DeSwaan, *Healing Pain*, Steubenville, OH: Emmaus Road Publishing, 2006.
- [24] L. J. Meyers and R. J. Zhu, "The influence of ceiling height: The effect of priming on the type of processing that people use," J of Consumer Research, Vol.34, No.2, pp.174-186, 2007.
- [25] 김은진, *소진을 보고하는 미술치료사의 미술관 체험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pp.108-135, 2015.

저 자 소 개

김 은 진(Eun-Jin Kim)

정회원



- 1994년 2월 : 고려대학교 미술교육학과(미술학사)
- 1997년 8월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교육학석사)
- 2004년 8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5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표현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미술치료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관심분야> : 미술교육, 미술치료, 미술관 교육